

깊고 간절한 마음 에너지가 병 고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35 나라를 살린 보살의 마음

한국이 싫다

M씨는 불평불만이 많은 편이었다.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는 왜 이래, 다 보기 싫다! 나도 이민이나 가 버릴까?"가 자주 나오는 한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바로 다음의 이야기였다.

가난한 여인의 촛불

옛날 어느 나라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며칠을 앓다가 쓰러져 목숨을 잃는 무서운 병이었다. 온 나라 의사들을 동원하여 고쳐 보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당황한 왕실에서는 커다란 제단을 마련하여 갖가지 음식을 쌓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이 재난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빌었다. 절에서도 기도법회를 하며 불자들은 가족의 건강발원을 위한 등을 켜려고 열심이었다. 그 나라에 한 가난한 보살이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남의 집 일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심만은 누구 못지않게 진실하고 순수했다. 보살은 병에 죽어 가는 사람들 소식을 듣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도 절에 가서 등을 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등을 켜려면 보시금이 필요했는데 너무 가난한 형편에 어려웠다. 그래서 열을 넘겨

거의 잠을 자지 않고 바느질을 하였다. 마음으로는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소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병을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드렸다.

그 마음이 너무 절실하고 병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 바느질하는 손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곤 하였다. 밤새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 아침이면 눈이 뚝뚝 붓는 경우가 많았다.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보살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

한국 싫은 M씨 법문 듣고 감동

현대인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 커

'부처님의 마음' 회복위해 노력

아겠다는 일념에 품사를 모아 결국 간신히 보시금을 마련해서 절로 향했다.

아외에 특별히 마련된 곳에 각자의 초에 불을 밝혀 올리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 틈에서 보살도 자신의 초에 불을 밝히고 합장하며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촛불들은 꺼져 가고 사람들은 안타까워 웅성웅성하고 비를 피하여 자리를 뜨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러나 가난한 보살은 개의치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

님, 도와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가슴에서 마치 뜨거운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쏟아지는 비속에 모든 촛불이 꺼졌으나 촛불 하나 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며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가난한 보살이 밝힌 촛불이었다. 보살의 눈에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보였다. 그 촛불로부터 나온 빛이 하늘로 올라가 전부 퍼져서 온 국토를 밝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부터 사람들의 병이 낫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에는 전염병이 그 나라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한 가난한 보살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온 나라를 살리는 마음의 촛불이 된 것이다.

마음의 병 무엇으로 고치나?

스님은 "오늘의 우리는 육신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온통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야성과 탐심의 병, 타인에 대한 비방과 증오의 병에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전국적인 전염병을 고치는 길은 각자 내 마음부터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마음으로 이 마음의 병이 낫기를, 모두 함께 참된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일심으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M씨는 "이제 보니 우리들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도대체 불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보질 못했어"라고 한다.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니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이다"라고 하였다. 사죄와 다른 사람과 맞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나는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의 빛을 밝혀 기도하며 정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32>

정신분석과 불교-12

부처님 시절에 끼사고파미라는 여인이 있었다. 여인은 젊은 장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결혼마를 시작할 무렵에 아들이 갑자기 죽고 말았다.

슬픔과 충격에 휩싸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아들을 살려내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상대하지 않자, 마침내 부처님 앞에 이르러 되었다.

여인은 울면서 애원했다. "부처님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 가서

죽은 아들에 충격 휩싸인 여인 '살려달라' 애원 '죽음이란 인간이 겪어야 하는 필연' 깨닫게해

겨자씨 한 줌을 얻어 가지고 오나라." 부처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다.

"전에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제게 겨자씨 한 줌만 주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은 한 집도 없었다. 그래서 여인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겨자씨를 얻을 수 없었다.

여인은 지친 몸으로 죽은 아들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기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죽은 사람의 수가 살아 있는 사람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여인은 부처님께서 겨자씨를 구해오라고 하신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순간 죽은 아

들에 대한 애착도 떨어져 나갔다. <법구경> 제8장 계승114. '끼사고파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만약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간 끼사고파미에게 부처님이 "세상 만물은 생로병사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윤회를 끊어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하라"고 가르쳤다면 그 말씀이 전혀 먹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여인은 아들의 죽음 문제로 심각한 절망에 빠졌고, 아무리 웅은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마음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인도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현실을 인정하기엔 너무도 상실감이 컸고, 자신의 아들만큼은 예외였으면 하는 불가능한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아신 부처님은 여인의 상황에 맞게 처방을 해 주었다. 역설적으로 아들을 살려낼 방법을 알려 준 것이다.

끼사고파미에 대한 부처님의 치료는 정신분석의 혼수(working through)와 같다. 혼수는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에 대해 통찰에 이르렀을 때 지적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적인 확신에 이르도록 반복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즉 통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 속에 의미 있고 영속적인 변화를 가져와, 최종적으로 방어하고 있던 면들까지 전체 인격 속에 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끼사고파미로 하여금 여러 집을 찾아다니게 함으로써 '죽음이란



그림 : 문병성

신앙개시판

* 선운사 MT 산사체험

고창 선운사가 '선운사 MT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추석 때 출발한 1기를 시작으로 10월 27~28일 제5기 산사체험이 이어진다. 선운사 템플스테이는 11월 24~25일의 9기까지 마련돼 있다. 10인 이상 단체라면 2박3일 코스의 휴식형 템플스테이를 신청하면 단체 일정과 맞춰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한다. (063)561-1422

* 구룡사 가족법회

서울 구룡사는 신도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가족법회를 병행한다. 10월 28일 가족법회에는 동국대 교수 법산 스님이 법사로 나서 법문한다. 이에 앞서 음력 보름인 25일 열리는 무량법회에는 각광 스님이 법문한다. 한편 26일 저녁

10시에는 무박 2일 일정의 성지순례를 떠날 예정이다. 순례지는 팔공산 깃바위와 나한도량 영천 은하사 거즈암이다. (02)575-7766

* 능인선원 사경법회

서울 능인선원이 11월 8일 오전 11시 국녕사 대불전에서 사경법회를 병행한다. 사경 겸인은 10월 18일~11월 7일 오전 10시~오후 3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엔 사경한 <천수경>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은 북한산 국녕대불 복장 장엄법사에 봉안된다.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을 모두 사경하면 원장스님 친견의 기회가 주어진다. (011)240-4779

* 용주사 방생법회 안내

화성 용주사가 10월 27일 영천 은하사 거즈암으로 방

생법회를 떠난다. 오전 7시 30분 출발 예정. 도시락 지참으로 동참금은 1인당 2만원이다. (031)234-0040

* 거조암 오백나한친견법회

영천 은하사 거조암이 10월 27일 오백나한 친견대법회를 병행한다.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을 초청해 법문도 듣는다. (054)335-1369

* 신륵사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

여주 신륵사가 10월 27~28일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 그 첫 번째, 가까이에서 시작하기를 개최한다. '우리 아이와 통(通)하자' 유아용, '인간 주제로 열리는 갈등 해결과 평화학교는 초·중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자식간의 갈등해결에 포커스를 맞춘다.(031)885-2505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철(대웅전, 오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행화

시계절 단화

발·마춤형 제작

특·무명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최고의 선물

방한용 뒀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무명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 (11mm 단화)
• 색상 : 진회색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INTERNET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전국매점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진승복 062)226-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69
- 충북(충주) 원심사 불교점 043)846-9091 / 경북(예천) 컷다불교점 054)655-2525

신비의 명약 鳳凰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보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보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보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보로초로 알려진 보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보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하는 보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보삼



* 본초강목에 의하면 보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뇨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보삼 달인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중, 황달, 대장염, 임중,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욕,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